

## 情報의 評價特性 및 組合의 크기에 따른 好惡와 和親次元 印象反應의 差異\*

趙 兢 鎬

全南大學校 心理學科

필자의 선행연구(趙, 1979, 1982a)에서는 대상 인물에 대한 好惡次元 인상판단은 누가모형에 따라 이루어지고, 和親次元 인상판단은 평균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好惡次元 인상판단은 知的 特性을, 그리고 和親次元 인상판단은 情的 特性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인상평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대상인물을 知的 또는 情的 特性만으로 구성하여 조합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때 정보가 통합되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 好惡判斷에서는 제시되는 정보특성에 관계없이 대체로 누가모형에 의한 정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和親判斷에서는 제시되는 특성의 情報優越性에 따라 정보가 통합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Hamilton과 Fallot(1974)는 Rosenberg, Nelson과 Vivekananthan(1968) 및 그 이후의 내현성격이론들에서 밝혀진 대인평가의 하위차원인 知的 評價特性和 情的 評價特性으로 각각 대상인물을 기술하여 구성하고, 이들 인물에 대해 客觀的인 尊敬도와 주관적인 和親도의 두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인상판단을 시키면, 尊敬도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 인물이 정적 특성 인물보다 더 높은 인상평가를 받았음에 비하여 和親도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 특성은 명백한 기준에 의한 客觀的인 평가의 대상이 되고, 정적 특성은 私的인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대상인물에 대한 客

\* 이 실험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朴漢基군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觀的인 평가인 尊敬과 主觀的인 평가인 和親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필자(趙兢鎬, 1982 b)는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평가의 차원은 판단자의 대상인물에 대한 의존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밝혀내었다. 그에 의하면,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客觀的인 好惡次元(좋다-나쁘다 차원)에 따라 인상평가가 이루어지고,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주관적인 和親次元(좋아한다-싫어한다 차원)에 따라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필자(趙兢鎬, 1982 a)는 대상인물에 대한 客觀的인 好惡次元 인상평가는 지적 활동 및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인상평가가 이루어지고, 주관적인 和親次元 인상평가는 대인관계에서의 정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인상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리하였다. 그 까닭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적 특성은 명백한 기준에 의한 客觀的인 평가의 대상이 되고, 대인관계에서의 정적 특성은 사적인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결과 지적 특성만으로 구성된 인물에 대해서는 好惡次元 인상평가가 和親次元 인상평가보다 더 극단적이었지만, 정적 특성만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和親次元 인상평가가 好惡次元 인상평가보다 더 극단적이었음이 밝혀지므로써, 이와 같은 추리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필자는(趙兢鎬, 1979) 대상인물에 대한 客觀的인 好惡次元 인상평가는 대체로 누가모형에 따른 인상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主觀的인 和親次元 인상평가는 평균모형에 따른 인상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즉, 好惡次元 인상평가에서는 정보조합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인상평정치가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和親次元 인상평가에서는 정보조합의 크기에 따라 인상평정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상인물을 지적 평가특성과 정적 평가특성으로 함께 조합하여 구성하고 인상평가를 요구한 실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만일, 각각의 인상평가(好惡次元 인상평가와 和親次元 인상평가)에 주요 단서가 되어지는 특성(知的 評價特性과 情的 評價特性)으로 각각 대상인물을 구성한 조건에서 조합의 크기 효과를 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는 Triandis와 Fish-

bein(1963) 및 Hamilton과 Huffman(1971) 등에서 그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riandis와 Fishbein(1963)은 대상인물의 성격특성이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자극재료를 구성하였을 때와 대상인물의 인종, 직업, 국적, 종교 등 여러 요인으로 자극재료를 구성하였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평균모형에 따라,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누가모형에 따라 인상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Hamilton과 Huffman(1971)을 대상인물을 구성하는 정보들을 평가와 활동성 차원으로 하였을 때에는 대체로 평균 모형에 따라 인상통합이 이루어지지만, 역능차원으로 대상인물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을 때에는 어느 모형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Manis, Gleason과 Dawes(1966) 및 Rosnow와 Arms(1968)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여 대상인물에 대한 여러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제시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인상통합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결과적으로 통합되는 인상의 차원이 다르게 됨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필자의 먼저 실험의 결과들에서 보면, 인상통합의 과정에서 好惡次元의 경우에는 대체로 누가모형에 따라, 和親次元의 경우에는 대체로 평균모형에 따라 인상정보가 통합되지만, 또한 이러한 경향은 각각의 차원의 인상이 형성되는데 더욱 적절한 정보의 특성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 보려 하였다.

## 方 法

**被驗者** 전남대학교에서 심리학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2, 3학년 학생 50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25명씩 두 집단(好惡判斷集團과 和親判斷集團)으로 나뉘어져서, 강의가 끝난 후 실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實驗材料** 張聖洙(1978)의 자료에서 대체로 好惡度値와 和親度値가 같은 性格特性形容詞를 다음 각 집단에서 5개씩 선정하였다. 각 단어집단별로 선정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正的 單語 : 知的 特性(PI) : 현명하다. 똑똑하다. 틀림없다. 비범하다. 슬기롭다.

情的 特性(PS) : 명랑하다. 온화하다. 묵묵하다. 너

그렇다. 구수하다.

負的 單語 : 知的 特性 (NI) ; 멍청하다. 어리석다. 괴팍하다. 당  
 돌하다. 미련하다.

情的 特性 (NS) ; 메마르다. 싸늘하다. 무정하다. 냉  
 혹하다. 도도하다.

각 단어집단별 척도치 평균과 그 분포범위는 다음 表 1 과 같다.

〈表 1〉 각 단어 집단별 척도치 평균\* 및 그 분포 범위

		好 惡 度 值		和 親 度 值	
		平均	範 圍	平均	範 圍
P	I	1.68	1.27 ~ 1.96	1.62	1.13 ~ 1.94
	S	1.66	1.05 ~ 2.04	1.73	1.29 ~ 1.96
N	I	-1.06	- 1.27 ~ - .91	-1.10	- 1.35 ~ - .75
	S	-1.14	- 1.56 ~ - .69	-1.09	- 1.66 ~ - .62

\* +3 ~ -3의 7점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이들 단어들을 가지고 각 단어집단별로 조합의 크기가 3과 5인 단  
 어조합을 만들었다. 먼저 각 단어집단 (PI, PS, NI, NS) 별로 조  
 합의 크기가 3인 단어조합을 60개씩 ( ${}_3P_3$ ) 만들고, 이를 18.7cm  
 × 8.2cm의 IBM카드에 옆으로 벌려 적어 넣었다. 그 다음으로 각  
 단어집단에 속하는 단어에 각각 1~5의 번호를 붙이고, 이를 무  
 선적으로 非代置의 방법으로 뽑아 조합의 크기가 5인 단어조합을  
 60개씩 구성하였다. 이를 다시 위에서와 같은 IBM 카드에 옆으로  
 벌려 적어 넣었다. 이렇게 해서 각 단어집단 (PI, PS, NI, NS) 별  
 로 조합의 크기가 3과 5인 단어조합을 각각 60개씩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 이들 중 각 단어집단별, 조합의 크기별로 1개씩 무  
 선적으로 뽑아 8개씩 (4 단어집단 × 2 조합크기)을 한 묶음으로 하  
 는 소책자를 60개 구성하여 이중 30개는 好惡判斷集團用으로, 나  
 머지 30개는 和親判斷集團用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각  
 집단의 피험자가 25명씩이었으므로 각 집단 25개씩의 소책자가 무  
 선적으로 선정되어 사용되었다.

節次 피험자들은 好惡判斷과 和親判斷別로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각 집단의 피험자에게 실험재료를 배부하기 전에 指示文과 評定尺을 인쇄한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고 익히도록 하였다. 지시문은 好惡判斷集團用과 和親判斷集團用의 두가지이었는데, 어느 종류의 지시문에나 서두에는 인상형성실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시가 포함되어져 있었으며, 제시되는 소재자 한장씩이 각각 하나의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서 이들 형용사는 각 인물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진 특성들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시 외에 好惡判斷集團을 위해서는 好惡次元의 인상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지시문이 첨부되어 있었고, 和親判斷集團을 위해서는 和親次元의 인상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지시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好惡判斷集團을 위한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 사람인지’ 하는 점에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 하는데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客觀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하는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지 외에 客觀的인 好惡次元의 인상을 4번 강조하여 반복하고, 제시되는 인물이 客觀적으로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20 ~ -20의 41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評定尺에는 +20에 “아주 좋은 사람”, -20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나머지는 5점 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好惡判斷의 지시에서 “客觀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 사람인지”하는 구절과 “주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 혹은 싫어할 것인지”하는 구

절만을 바꾸어 넣고, 주관적인 和親次元의 인상을 평정할 것을 4번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시되는 인물에 대해 주관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역시 +20 ~ -20의 41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評定尺에는 +20에 “아주 좋아한다”, -20에 “아주 싫어한다”라는 명명만을 하였고, 나머지는 5점 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지시문을 읽고 난 후 본 실험재료와는 다른 아주 正的인 단어 2개 (好惡度平均) = 2.62, 和親度平均 = 2.66), 中立的인 단어 2개 (好惡度平均 = .04, 和親度平均 = -.11), 아주 負的인 단어 2개 (好惡度平均 = -2.43, 和親度平均 = -2.52) 씩으로 이루어진 3명의 인물에 대해 練習評定을 하였다. 이 연습평정의 목적은 피험자들에게 자기가 평정할 판단차원을 익숙하게 하고, 또한 評定尺의 基準點(anchoring point)을 형성시키려는 것이었다.

연습평정이 끝난 후 피험자들은 배부받은 소책자를 한장씩 넘기면서 지시받은 판단차원에 따라 인상평정을 하였다. 이때 시간제한은 하지 않았는데, 전체 실험실시에 대체로 약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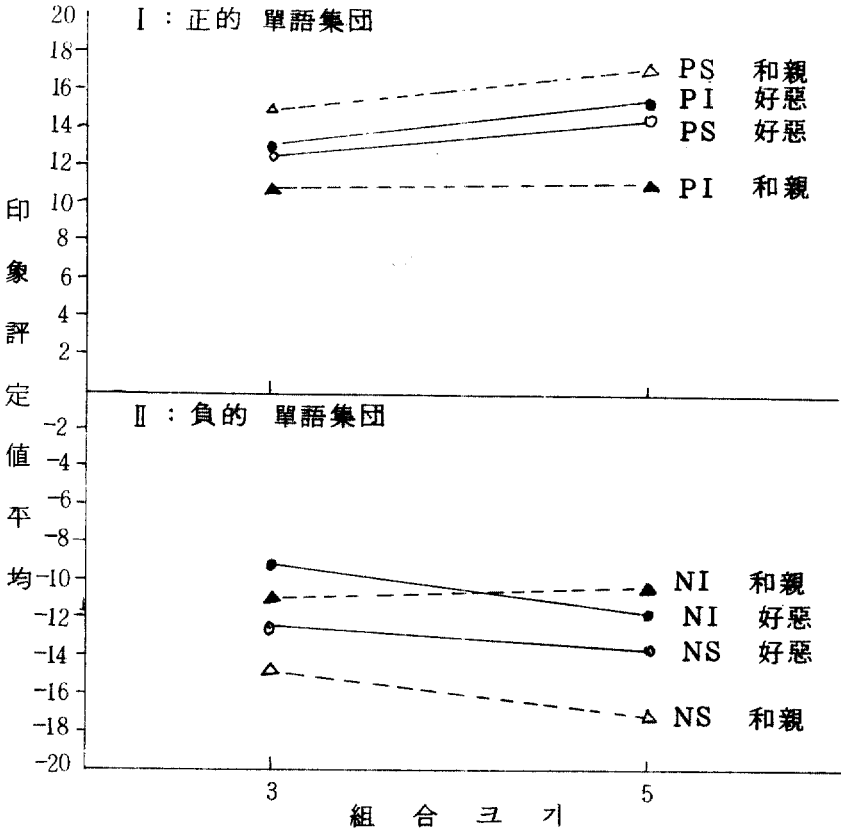
**實驗設計** 실험은 2 (好惡·和親 判斷次元) × 2 (正·負의 單語集團) × 2 (知的·情的 評價特性) × 2 (3·5의 組合크기)에서 피험자가 正·負의 單語集團, 知的·情的 評價特性, 組合크기에서 반복된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 結 果

본 실험의 종속변인은 피험자가 正·負의 단어집단에서 특성의 평가차원 별로 제시된 조합크기 3·5의 단어조합에 대해 반응한 好惡와 和親의 인상평정치 이었다. 好惡判斷集團과 和親判斷集團이 각 단어조합에 대해 반응한 인상평정치의 평균이 다음 表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 表2에서 보면, 好惡判斷에서는 知的 特性和 情的 特성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인상평정치가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和親判斷에서는 情的 特性으로 구성된 인물의 인상평정치는 조합의 크기에 따라 극단화하고 있지만 知的 特性

으로 구성된 인물의 인상평정치는 조합의 크기에 따른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다음 그림 1이다.



(그림 1) 각 단어집 단에서 조합크기에 따른 인상평정치평균

위의 그림 1에서 보면, I ; 正的 單語集團에서나 II ; 負的 單語集團에서나 모두 好惡判斷에서는 特性的 評價次元에 관계없이 조합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인상 평정치가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和親判斷에서는 I ; 負的 單語集團에서 모두 情的 特性的 경우에만 조합의 크기가 커짐에 따른 인상평정치의 극단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知的 特性的 경우에는 조합의 크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2 \times 2 \times 2 \times 2$  요인 반복측정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처리해 본 결과는 다음 表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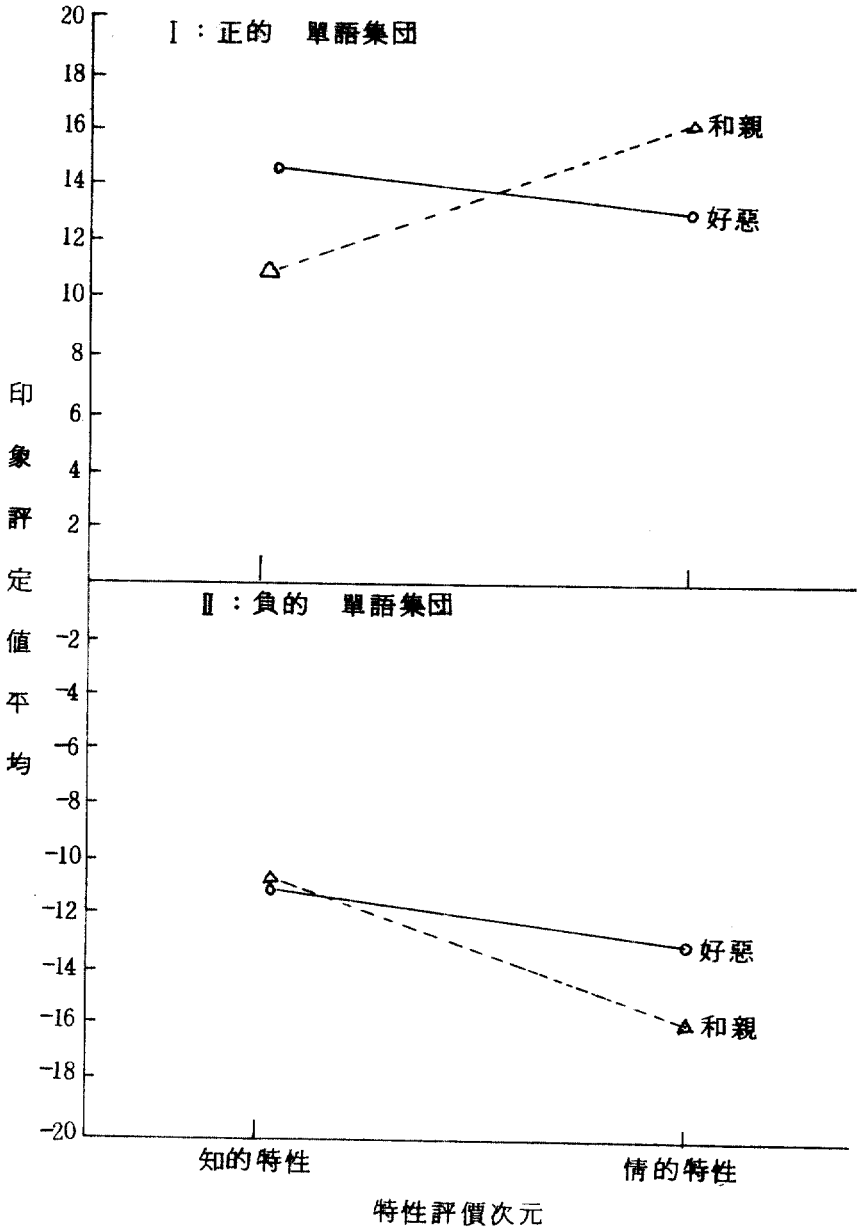
<表3> 전 집단 변량분석 결과

度 散 源	自 乘 和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被 險 者 間	1249.58	49		
好惡・和親判斷 (A)	68.47	1	68.47	6.87*
集團內被驗者(誤差 a)	1181.11	48	9.96	
被 驗 者 內	77973.79	350		
正・負 單語 (B)	69208.45	1	69208.45	970.12**
A B	27.79	1	27.79	-
B×集團內被驗者(誤差 b)	3424.24	48	71.34	
知的・情的評價特性 (C)	66.01	1	66.01	3.17
A C	33.36	1	33.36	1.60
C×集團內被驗者(誤差 C)	1000.11	48	20.84	
組合크기 (D)	.60	1	.60	-
A D	.68	1	.68	-
D×集團內被驗者(誤差 d)	273.70	48	5.70	
B C	854.11	1	854.11	30.28**
A B C	424.38	1	424.38	15.04**
BC×集團內被驗者(誤差 bc)	1354.21	48	28.21	
B D	283.08	1	283.08	46.03**
A B D	7.27	1	7.27	1.18
BD×集團內被驗者(誤差 bd)	295.11	48	6.15	
C D	.17	1	.17	-
A C D	2.19	1	2.19	-
CD×集團內被驗者(誤差 cd)	388.60	48	8.10	
B C D	20.04	1	20.04	4.00
A B C D	69.45	1	69.45	13.86**
BCD×集團內被驗者(誤差 bcd)	240.24	48	5.01	

\* 5% 有意水準

\*\* 1% 有意水準





( 그림 2 ) 特性評價次元에 따른 印象評定值 平均

위의 表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好惡・和親判斷次元(A), 正・負單語集團(B), 知的・情的 評價特性(C)의 三重相互作用과 이들 세 변인과 組合크기(D)의 四重相互作用이 의미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F_{ABC} = 15.04$ ,  $df = 1/48$ ,  $p < .01$ ;  $F_{ABCD} = 13.86$ ,  $df = 1/48$ ,  $p < .01$ ).

위의 표에서 3중상호작용(ABC)이 의미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은 4개의 단어집단(PI, PS, NI, NS)에서 조합의 크기 3과 5의 결과를 합하여 평균치를 제시한 다음 表4와 이를 그림으로 제시한 그림2에서 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表4> (P·N) × (I·S) 단어집단별 평정치 평균\*

正・負單語 特性評價次元 印象判斷	P		N	
	I	S	I	S
好惡判斷	14.20	13.67	-10.73	-12.98
和親判斷	11.25	16.00	-10.59	-15.81

\* +20 ~ -20의 41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知的 特性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好惡次元 인상평정치가 和親次元 인상평정치보다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情的 特性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和親次元 인상평정치가 好惡次元 인상평치보다 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필자의 선행연구(趙, 1982a)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知的 特性은 好惡次元의 인상이 형성되는 데에, 그리고 情的 特性은 和親次元의 인상이 형성되는 데에 더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好惡・和親의 인상판단차원에 따른 知的・特性 평가특성의 위에서의와 같은 情報優越性(Hamilton과 Fallot, 1974)의 차이는 好惡判斷에서 보다는 和親判斷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知的 特性의 가지는 정보우월성 보다는 情的

特性이 가지는 그것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실험의 자료를 好惡判斷集團과 和親判斷集團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表5와 知的 評價特性和 情的 評價特性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表6을 보면 알 수 있다.

〈表5〉 호오·화친판단별 변량분석결과

	好惡判斷集團				和親判斷集團			
	自乘和	自由度	平均自乘	F	自乘和	自由度	平均自乘	F
被驗者間	733.62	24			447.50	24		
被驗者內	37387.56	175			40586.22	175		
正·負單語(A)	33256.20	1	33256.20	1562.06**	35979.03	1	35979.03	1899.63**
知的·情的評價特性(B)	96.60	1	96.60	4.54*	2.76	1	2.76	-
組合크기(C)	1.28	1	1.28	-	.01	1	.01	-
AB	36.99	1	36.99	1.74	1242.52	1	1242.52	65.60**
AC	410.37	1	410.37	19.28**	97.31	1	97.31	5.14*
BC	1.81	1	1.81	-	.55	1	.55	-
ABC	7.21	1	7.21	-	81.27	1	81.27	4.29*
殘餘(誤差)	3577.10	168	21.29		3182.77	168	18.94	

\* 5% 有意水準

\*\* 1% 有意水準

表5에서 보면, 好惡判斷集團에서는 正·負單語集團(A)과 知的·情的 評價特性(B)의 상호작용이 의미없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 $F_{AB} = 1.74$ ,  $df = 1 / 168$ ,  $p > .05$ ), 和親判斷集團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 $F_{AB} = 65.60$ ,  $df = 1 / 168$ ,  $p < .01$ ), 이는 그림 2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和親判斷에서의 각 평가특성의 情報優越性이 好惡判斷에서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表6에서 보면, 知的 評價特性的 경우에는 好惡·和親判斷(A)과 正·負單語集團(B)간의 상호작용이 없으나 ( $F_{AB} = 1.96$ ,  $df = 1 / 48$ ,  $p > .05$ ), 情的 評價特性的 경우에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검출되고 있다 ( $F_{AB} = 8.60$ ,  $df = 1 / 48$ ,  $p < .01$ ). 이는 情的 評價特性이 인상판단차원에 따라 가지게 되는 정보우월

〈表 6〉 特性評價 次元別 變量분석 결과

變 散 源	知的 評價 特性				情的 評價 特性			
	自乘和		自由度 平均自乘 F		自乘和		自由度 平均自乘 F	
<u>被驗者間</u>	1515.48		49		767.57		49	
好惡・和親判斷(A)	98.70	1	98.70	3.43	3.13	1	3.13	-
集團內被驗者(誤差 a)	1416.78	48	29.52		764.69	48	15.93	
<u>被驗者內</u>	31163.56		150		45710.75		150	
正・負單語(B)	27342.91	1	27342.91	449.28**	42719.64	1	42719.64	1104.15**
AB	119.36	1	119.36	1.96	332.82	1	332.82	8.60**
B×集團內被驗者(誤差 b)	2921.16	48	60.86		1857.04	48	38.69	
組合크기(C)	.06	1	.06	-	.72	1	.72	-
AC	.22	1	.22	-	2.64	1	2.64	-
C×集團內被驗者(誤差 c)	371.41	48	7.74		290.64	48	6.06	
BC	76.27	1	76.27	13.55**	226.85	1	226.85	41.02**
ABC	62.14	1	62.14	11.04**	14.83	1	14.83	2.68
BC×集團內被驗者(誤差 bc)	270.03	48	5.63		265.57	48	5.53	

\*\* 1% 有意水準

성이 知的 評價特性的 그것보다 큼을 의미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表 3에서 보면, 好惡・和親判斷次元(A), 正・負單語集團(B), 知的・情的 評價特性(C)의 세 요인에 따라 組合의 크기(D)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_{ABCD} = 13.86$ ,  $df = 1 / 48$ ,  $P < .01$ ). 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 판단별로 네개의 단어집단에서의 조합의 크기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 表 7과 같다.

表 7에서 보면, 好惡判斷에서는 N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어집단에서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和親判斷에서는 情的 特性的 조합에서만 크기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 知的 特性的 조합에서는 크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대체로 好惡判斷에서는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和親判斷에서는 特性的

〈表 7〉 각 판단별 · 단어집단별 조합크기 효과 (F)

		好 惡 判 斷	和 親 判 斷
P	I	13.96**	.08
	S	12.03**	18.12**
N	I	8.13**	.00
	S	2.26	15.48**

\*\* 1% 有意水準 ( $df = 1 / 24$ )

評價次元에 따라 조합의 크기효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表 5 에서도 볼 수 있다. 즉 表 5 에서는 好惡判斷에서는 正 · 負單語(A), 知的 · 情的 評價特性(B), 組合크기(C)의 삼중상호작용이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나 ( $F_{ABC} < 1.0$ ,  $df = 1 / 168$ ,  $p > .05$ ) 어느 경우에도 대체로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和親判斷에서는 이 삼중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 ( $F_{ABC} = 4.29$ ,  $df = 1 / 168$ ,  $p < .05$ ) 특성의 평가차원에 따라 조합의 크기효과가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表 6 에서 보면, 好惡 · 和親判斷(A) 正 · 負單語(B), 組合크기(C)의 삼중상호작용이 情的 評價特性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 $F_{ABC} = 2.68$ ,  $df = 1 / 48$ ,  $p > .05$ ), 知的 特性的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 $F_{ABC} = 11.04$ ,  $df = 1 / 48$ ,  $p < .01$ ) 위에서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해 주고 있다. 즉 情的 特性的 組合에서는 인상의 判斷次元에 관계없이 대체로 조합의 크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知的 特性的 組合에서는 인상의 판단차원에 따라 조합의 크기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論 議

이상과 같은 본 실험의 결과는 두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적 활동을 표현하는 知的 評價特性들은 타인의 객관적인 좋고 나쁨의 평가인 好惡次元의 인상을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정적 행동을 표현하는 情的 評價特性들은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좋아하고 싫어함의 평가인 和親次元의 인상을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

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필자의 선행연구(趙, 1982a)에서도 거듭 밝혀진 바 있다. Hamilton과 Falot (1974)는 자극 속성의 내용과 반응차원 사이에서 자극 속성이 달라짐에 따라 각 반응차원에서의 인상평정치가 달라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情報優越性(information salience)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본 실험의 결과는 知的 特性은 好惡次元 인상판단을 할 때 더 우월한 정보로 작용하게 되고, 情的 特性은 和親次元 인상판단이 이루어질 때 더 우월한 정보로 작용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好惡次元과 和親次元의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가 통합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선행연구(趙, 1979)에서 好惡次元 인상판단은 累加模型에 따라, 그리고 和親次元 인상판단은 대체로 平均模型에 따라 인상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됨을 밝혀 내었다. 이는 好惡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났지만 和親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조합의 크기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추론이었다. 본 실험에서도 조합의 크기효과는 好惡次元 인상판단에서와 和親次元 인상판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好惡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대상인물을 구성한 特性의 評價的 屬性에 관계없이 대체로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好惡次元의 인상판단을 할 때에는 異加模型에 따른 정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和親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대상인물을 구성한 특성의 평가적 속성에 따라 조합의 크기효과가 달라지고 있다. 즉 知的 特性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平均模型에 따른 정보통합이 이루어지고, 情的 特性으로 구성된 인물의 경우에는 조합의 크기효과가 나타나므로써 累加模型에 따른 정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情的 特性은 和親次元 인상판단이 이루어질 때 情報優越性을 갖는 특성들이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결과는 和親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더 우월한 정보인 情的 特性이 주어지면 累加的으로 작용하여 정보통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비교적 덜 중요한 정보인 知的 特性이 주어지면 平均的으로 정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판단차원에 따라 서로 다른 情報優越性을 갖는 知的 評價特性과 情的 評價特性의 조합에서 정보가 통합되는 양상이 和親次元에서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好惡次元에서는 별 차이 없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表5와 表6의 결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表5에서는 好惡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서 보다는 和親次元 인상판단의 경우에 제시되는 특성들의 情報優越性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表5에서 正・負單語(A)와 知的・情的 評價特性(B)의 상호작용이 好惡判斷集團에서는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F_{AB} = 1.74$ ,  $df = 1 / 178$ ,  $p > .05$ ), 和親判斷集團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F_{AB} = 65.60$ ,  $df = 1 / 168$ ,  $p < .01$ )점에서 추론될 수 있다. 또한 表6에서는 각 판단차원에 따른 평가특성들의 이러한 情報優越性은 知的 評價特性에서 보다는 情的 評價特性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表6에서 好惡・和親判斷(A)과 正・負單語集團(B)간의 상호작용이 知的 評價特性의 경우에는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F_{AB} = 1.96$ ,  $df = 1 / 48$ ,  $p > .05$ ), 情的 評價特性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F_{AB} = 8.60$ ,  $df = 1 / 48$ ,  $p < .01$ )점에서 추론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에서 보면, 情的 評價特性으로 구성된 인물을 和親次元에서 인상판단할 때 情報優越性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好惡次元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에는 제시되는 특성의 평가적 속성에 따른 情報優越性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실험에서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평가특성에 따라 정보통합의 양상이 달랐지만 好惡判斷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好惡判斷의 경우에도 NS 단어조합에서는 조합의 크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써(表7 참조) 好惡判斷에서도 평가특성의 情報優越性의 차이에 따라 정보통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和親判斷에서 밝혀진 결과와 어느정도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好惡判斷의 경우 PS 단어 조합에서는 조합의 크기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表7 참조) 단지 가능성으로서만 남을 뿐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본 실험에서는 知的 特性은 好惡次元 인상판단의 주요 단서로 작용하게 되고 情的 特性은 和親次元 인상판단의 주요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각 평가특성의 판단차원에 따른 情報優越성에 따라 정보가 통합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실험의 결과는 해당 판단 차원에 대해 情報優越성을 갖는 특성들은 累加的으로 정보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특성들은 平均的으로 정보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를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張聖洙. 印象形成에서의 情報統合에 관한 一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78 .
- 趙兢鎬. 같은 內容의 印象情報의 數가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韓國心理學會誌, 1979 . 2, 132 - 148 .
- 趙兢鎬. 知的 評價情報과 社會的 評價情報가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社會心理學研究 1982 . 1, 78 - 100 . (a)
- 趙兢鎬. 對人評價次元의 二元性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2 . (b)
- Hamilton, D.L., & Fallot, R.D. Information salience as a weighting factor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29, 649-654.
- Hamilton, D.L., & Huffman, L. J. Generality of impression formation processes for evaluative and nonevaluative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20, 200-207.
- Manis, M., Gleason, T.C., & Dawes, R.M. The evaluation of complex social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6, 3, 404-409.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han, P.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9, 283-294.
- Rosnow, R.L., & Arms, R.L. Adding versus averag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forming impressions of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10, 363-369.
- Triandis, H.C., & Fishbein, M. Cognitive interaction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3, 67, 446-453.

## ABSTRACT

### INFORMATION SALIENCE AND SET-SIZE EFFECT IN IMPRESSION FORMATION

*Cho, Geung-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author (Cho, 1979) found that the favorableness (good-bad) impressions were evaluated extremely as the set-size of the stimulus person increased, but the likableness (like-dislike) impressions were not evaluated extremely as the set-size in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case of the favorableness impression, traits of the stimulus person are integrated according to the adding model. On the other hand, those in the likableness impression are integrated according to the averaging model. In his later experiment (Cho, 1982a), intellectual traits were more salient for judgments of favorableness, and affective traits were more salient for judgments of likableness.

This study was designed to test the set-size effect and information salience effect, dis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combining in one experimental setting. 2 (favorableness vs. likableness judgements) x 2 (positive vs. negative words) x 2 (intellectual vs. affective traits) x 2 (set-size 3vs. 5) factorial design was used in this experi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0 college student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as favorableness judgement group, and the other was likableness judgement

group. Thus, the later 3 variables stated above were repeated for each of the subjects.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llectual traits had more information salience for the judgements of favorableness, and affective traits were more salient for the judgements of likableness. This is a consistent result with the author's previous finding (Cho, 1982 a).

Second, the set-size effects in the favorableness judgement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likableness judgements. That is, in judging the favorable impression, set-size effects were found regardless of the evaluative dimension of the stimulus traits. On the other hand, in judging the likable impression, set-size effects were found in affective traits word-set, but set-size did not take any effect in intellectual traits word-set.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wo types of the traits of the stimulus person give different effect and information is intergrated differently in forming impressions of favorableness and in those of likableness.